

한-싱가포르

# 디지털동반자협정 타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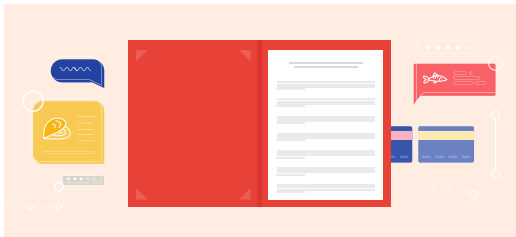


2021년 12월 한-싱가포르 DPA\*가 타결되었으며,  
지난 3월 협정문안이 확정되었습니다.  
이번 협정은 **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**입니다.

- 2020년 6월부터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 
10차례의 공식협상 끝에 타결되었습니다.

- 싱가포르는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며,  
아세안에서 앞서 가는 디지털 허브 국가입니다.

\* 디지털동반자 협정: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, 이하 DPA



이번 협상은 2006년에 발효된  
**한-싱가포르 FTA의 전자상거래 챕터를 대체합니다.**  
협정문안은 본문 7개 조항, 부속서 34개 조항 및  
부속서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- 올해 2월 발효된 RCEP보다 디지털 통상규범의  
범위가 확대되고 디지털 신기술 협력 조항이 포괄되어 있습니다.

협정문은 전자상거래 원활화, 온라인 소비자보호, 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 등 **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과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협력을 포함하고** 있습니다.

분야	주요 조항
전자상거래 원활화	전자인증·전자서명, 디지털제품 무관세, 종이없는 무역, 핀테크 협력 등
온라인소비자보호	개인정보 보호, 온라인소비자 보호, 스팸 메시지 규제, 사이버보안 협력 등
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	국경간 정보이전 원활화, 컴퓨팅 설비 현지화 금지, 소스코드 공개 금지, 디지털 제품 비차별대우, 인공지능(AI)·디지털경제 표준 협력 등

\*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

## 對싱가포르 교역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)

	2019	2020	2021
수출액	3.1	2.5	2.6
수입액	21.9	19.5	23.7
무역수지	-18.8	-17.0	-21.1

수산부문을 살펴보면, 싱가포르는  
수산물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국가입니다.

**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연간 약 2천만 달러 규모의  
수산물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**

## 주요 수입 품목



## 주요 수출 품목



주요 수입 품목은 상어, 관상어, 김, 냉동어류 피레트 등입니다.

주요 수출 품목은 김, 이빨고기, 기타게, 굴 등입니다.

이번 협상으로 전통적인 상품·서비스 거래뿐만 아니라  
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교역이  
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

수산물의 경우 전자상거래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 
우리나라 수산업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  
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 
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.